

제14회 신인춤제전

젊은춤 푸른춤 한마당

젊은춤 2008년 4월 4일(금) 하오 7시 30분 /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5일(토) 하오 5시

푸른춤 2008년 4월 5일(토) 하오 7시 30분 /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6일(일) 하오 5시

주최 : (사) 민족미학연구소 ☎ 513-5898

주관 : 부산민주공원 ☎ 462-1016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민예총

점고푸른 ^{기, 간} ₍₂₎ 한미당

일과 놀이, 삶과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춤을 찾아서

채 희 완 (춤 평론가, 부산대 교수)

우리춤에 발을 놓는 법으로 '비정비팔(非正非八)'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발을 비스듬히 디디되 丁자 모양도 아니고 八자 모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좀더 면밀히 보면, 丁자 모양이 아니어서 八자 모양이고 八자 모양이 아니어서 丁자 모양이라는 겁니다. 丁자 모양이기도 하고 八자 모양이기도 한것인데, 아무래도 조금은 어중간한 디딤새이지요.

어찌보면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 회색의 행보인 듯도 싶고, 이것이며 또 저것인 것이어서 '2중교호의 기우뚱한 균형'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직각과 둔각, 벌림과 오무림이 교차하고 한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렴과 확산이 연동하면서 무궁한 태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금을 죽였다 도듬새를 놓았다 하여 몸 전체를 놀립니다. 앞으로 내밀고 뒤로 갈 때 비드름 뒤축을 살짝 들어 '덩실덩실' 춤추고, 가슴에서 팔을 내어 엮었다 제쳤다 짓고 뿌려 '너울너울' 춤춥니다. 디딤새와 발길이 날카롭기로 이름난 이매방 명인의 발 놓는 법이 그러하다지요. 이리해서 그분의 활갯짓은 더없이 자유롭고 거기서 정중동의 시김새가 나옵니다. 그늘이 어려 짙은 데서 흰빛을 품에 그려주고 사방으로 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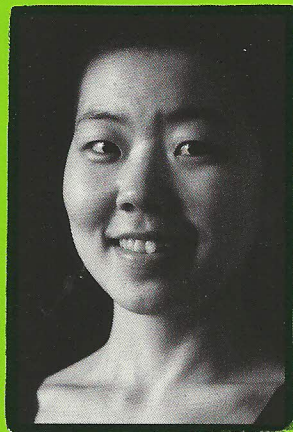
우리나라 활쏘기의 아랫몸 자세가 '비정비팔'입니다. 활쏘는 이의 발의 위치는 丁자도 八자도 아니면서, 가슴은 비우고 배는 단단히 해야 한답니다. 대체로 스트레이트 스탠스(straight stance)라고 하여 두 발을 과녁과 직각으로 두는 양궁의 자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찌면 이러한 엉겨주춤한 자세야말로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120보 앞 145미터쯤 떨어진 과녁을 적중시키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칼날 같은 과학적 엄정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퍼지(fuzzy)이론이 그렇지요. 우리춤의 동작도 이러한 무술 동작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면, 솜씨 좋게 대패질하는 큰 목수의 아랫몸 자세가 또한 '비정비팔'입니다. 그분이 아무렇게나 무심코 놓은 발모양새가 바로 '비정비팔'입니다. 그렇게 발을 놓고 일하는 품새는 고역스런 일이 아니라 그대로 한가락의 춤인 듯하거든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춤추고 노는 듯합니다.

일과 놀이가 따로 없이 신명이 나 있고, 이를 보는 이에게도 신명을 불러 감염시킵니다. '비정비팔'의 발놓기, 발디딤새는 우리의 무술에서 춤에서 일에서 매한가지로 신명을 불러 일으키는 자세입니다.

21세기 오늘 어떠한 춤의 과학, 어떠한 춤의 신명이 있어 일과 놀이, 삶과 유희, 과학과 예술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푸른 춤 5일(토) 하오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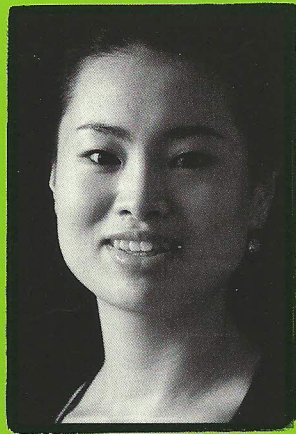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 안무 : 이혜민(동아대 졸)
- 출연 : 이도화, 김민지, 김아영, 이혜민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고통의 명예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엔 내일의 꿈도
희망도 꿀 수 없는 자들이 많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소용돌이의 고통과 압박
그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원한다

즐거움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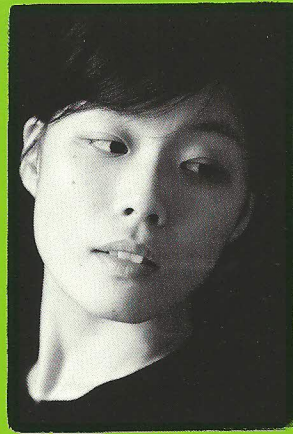
4일(금) 하오 7시 30분 / 5일(토) 하오 5시



門

- 안무 : 김혜진 (동아대 졸)
- 출연 : 이해숙, 박재범, 최혜리, 김나라, 박천심, 김혜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건물의 문을 지나고,
정신적인 문도 수 없이 통과한다.
관속에 살아있는 내가 누워있다.
관속같이 어두운 벽 속에 갇혀 사는 나,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문까지
빛장을 걸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안무 : 신소라 (부산대 졸)
- 출연 : 신소라

따분함과 지루함이 없는 곳,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나 혼자 지나간 여행을 한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울어버리겠지...
언제나 혼자였던 앨리스 처럼...



물들이다...

- 안무 : 김서은 (경성대 졸)
- 출연 : 김서은

점점 물들어...
그의 색으로 그의 익숙함에
나를 모두 버리고
손끝으로 파고 들어와
내 입술을 스친 상처로
심장안에 머물며
나는 이제 그대에게 -
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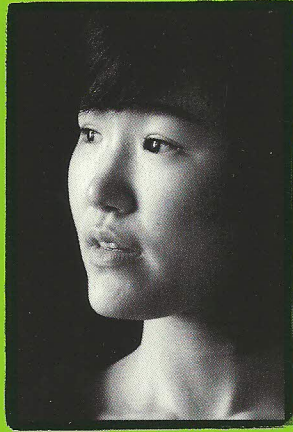
/ 6일(일) 하오 5시



사라지는 그림자...

- 안무 : 임선희 (경성대 졸)
- 출연 : 임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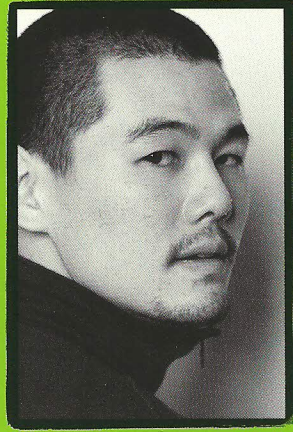
해질녘,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
수많은 그리움이 몰려드는,
불어드는 바람이 세차지는 시간...
또 하루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나의 머릿속에 드리워진다.
어쩌면, 나의 망상은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아닐까?



행복한 착각

- 안무 : 김미리 (부산대 졸)
- 출연 : 김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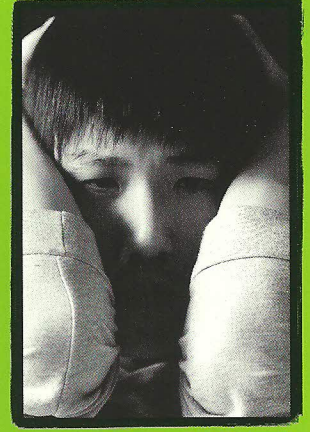
미친 듯 행복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꾸역꾸역 설움이 올라와
아프게도 만들지만
착각만으로도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 짝사랑.



the ragtag

- 안무 : 김종현 (경성대 졸)
- 출연 : 김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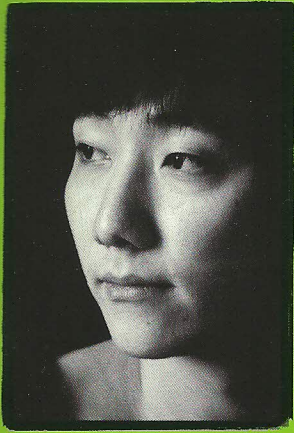
집에서 굶어가는 처자식이던
밀려있는 세금 고지서는 이미 이들에게겐
현실 밖의 일이다.
이들에게 현실은 썸지돈으로 얻은
10그램의 30분이 주는 자아찾기 놀이가
가장 큰 쾌락이자 이상적인 현실이다...
나 또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돈 한푼없이
바닥을 기고 있는 체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다...



성(性)

- 안무 : 오찬명 (창원시립무용단)
- 출연 : 오찬명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을 뿐...
왜...???
왜 난 평범한 저 사람들처럼
사랑 할 수 없는걸까...



희(욕망)

- 안무 : 강수빈 (경성대 졸)
- 출연 : 강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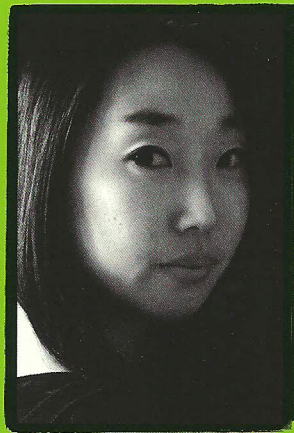
어떻게든
그녀석을 잡고 싶다.
그러나 끊임없이 달아난다.



월숙씨의 일상

- 안무 : 오윤정 (현대무용단 자유)
- 출연 : 오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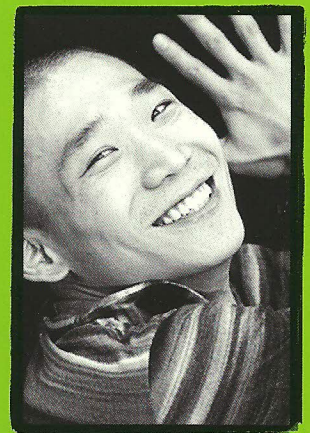
한 월숙씨는
월간 잡지에 글을쓰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feelings are facts

- 안무 : 하지원 (부산대 대학원)
- 출연 : 김현진, 하지원
- 영상 : 김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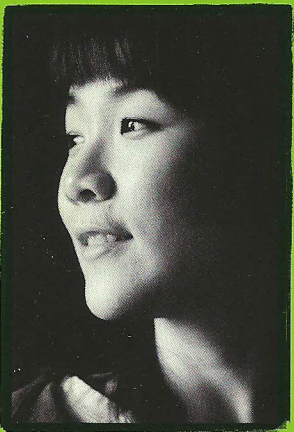
감정, 그대로가 사실이다
as happens are facts.



AM I HAPPY?

- 안무 : 정영민 (안은미 무용단)
- 출연 : 고흥균, 임현애, 정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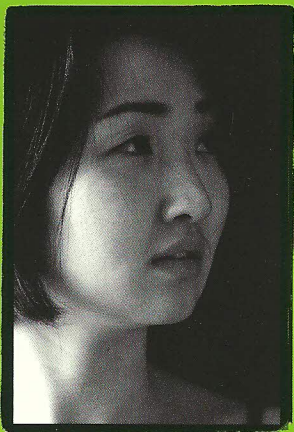
누군가 내 눈을 가리며 물어보았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않았다...



顔無

- 안무 : 안주현 (츄패 배김새)
- 출연 : 정은주, 송윤경, 이남정, 안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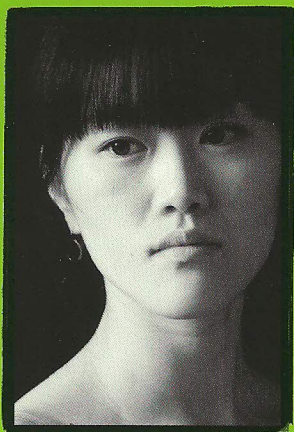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얼굴 없는 존재.
스스로 말을 할 수도 없다.
누군가를 삼켜야만
그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잃어버린 얼굴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상실한 존재다.



그날, 그 시간

- 안무 : 김수현 (현대무용단 자유)
- 출연 : 권아름,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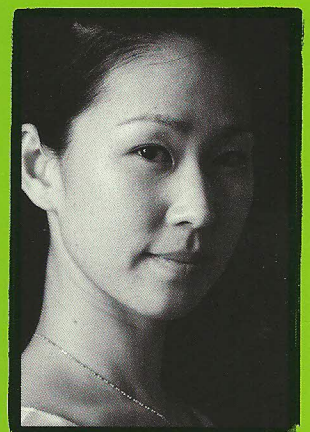
어여쁘다.
밀도 끝도 없는 그 속에 빠져든다.
스며드는 물기처럼
내 몸도 그 속으로 흘러든다.
그 순간은 망각이었다.
파편된 시간들이 조각되어
자국으로 남았다.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사랑, 추억... 그리움

- 안무 : 하상미 (부산대 졸)
- 출연 : 조재범, 하상미

사랑했던 추억속에 배어있는
향기가 있다.
떼어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리움에 눈물이 난다.



아리랑고개

- 안무 : 김옥희
- 출연 : 김옥희

저기 고개 넘어 남이 있다. 하여,
넌 찾으러 떠나는데,
성하지 못한 이 몸 이끼고,
넌 만나러 가기가 파란만장하구나!